

조선로동당창건 70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에서 하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영웅한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돌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동무들!
로동적위군과 붉은청년군위대 대원들!
존경하는 평양시민 여러분!
은 나라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
동지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에 넘쳐
조선로동당 당기가 창공높이 휘날리는 10월의 명절을
맞아하였습니다.

10월 10일은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혁명의 진위대, 전투적
참모부의 탄생을 경축하는 의미깊은 혁명적명절입니다.

오늘의 성대한 열병식과 군중시위는 우리 당이 장장
70년간 군대와 인민을 령도하여 억척같이 다져온 무적막
강한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줄것이며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광명한 미래에로 용기백배,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혁명적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하게 될것입니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궁시높이 돌이켜보는 이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 당의 수백
만 당원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
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존엄높은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모든것을 다 바친 항일혁명선열들과 인민군렬사들, 애국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당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인민은 당창건 일흔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기 위하여 백두의 붉은 혁명정신으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박차고 어머니당에 드리는 전례없는 로력적
선물들을 마련하였습니다.

인민의 불같은 충정이 끊이지는 승리의 광장, 경축의
광장에 서고보니 우리 인민을 떠난 오늘의 이 자리를
어떻게 생각이나 할수 있느냐 하는 인민에 대한 고마움에
지금 이 시각 경건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정겨운 눈빛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당이 장장 70년세월 그 어떤 광풍에도 끄떡없이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올수 있던
것은 우리 당을 운명의 전부로 믿고 따르며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위대한 인민이 있었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의 역사는 곧 인민이 걸어온 길이고, 우리 당의
힘은 곧 인민의 힘이며 우리 당의 위대함은 곧 인민의
위대함이고 우리 당이 이룩한 승리는 위대한 우리 인민의
승리입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우리 당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었고 강인한 의지로 역사의 험한 풍파속을 뚫고오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해준 사랑하는 전
체 인민들에게 당창건 일흔돌을 맞으며 조선로동당을 대표
하여 깊이 머리숙여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당의 호소들과 사회주의장성국가건설의 모든 전
역에서 애국의 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영웅적신화를 편이여 창조하고
승리의 대추전장에 맺었이 들어선 우리의 미더운 당원
동지들과 영웅한 인민군장병들, 자랑스러운 청년전위들
을 열렬히 축하하며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아울러 우리 인민의 경사의 날을 축하하여 여기에 참석한
여러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역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행로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령도하신 령도
우리는 당을 인민을 위하여, 인민대중과 한 덩어리가
되어 투쟁하는 불패의 혁명적당, 참다운 령도적정치조직
으로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당은 자기의 붉은 기록에 마치고 낫과 낫을 아로
새기 때로부터 인민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언제나
나 인민을 하늘처럼 섬기며 혁명을 전진시켜왔습니다.

역사에는 우리 혁명처럼 가장 간고하고 복잡한 조건에
서 겹겹을 혁명의 진퇴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련과
역경을 헤쳐온 예는 없습니다.

신생조선은 너무도 청소하였으나 세계제국야망에 환장
한 미제는 참혹한 전쟁을 강요하였고 빈터우에서 허리머
를 조이면서 힘들게 복구하면 또 새로운 침략의 위협을
몰아왔으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자고 하면 전대미문의
제재와 봉쇄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그 어떤 곤경속에서도 항상 배심된
듯히 돌진하였으며 이 땅우에 거창한 전변의 새 역사를
펼치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왔습니다.

역사의 돌풍속에서 우리 당이 믿은것은 오직 위대한
인민뿐이었으며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돌도 없는
지지가, 조연자, 방조자였습니다.

지난날 세계혁명운동사의 교훈은 집권당이라고 하여, 당의
역사가 오래다고 하여 저절로 령도적전위와 전투력이 높아
지자고 혁명을 잘 이끄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이 지닌 높은 권위와 쌓아올린 거대한
업적은 혁명 그자체를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식화하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고 오직 인민을 위하여 헌신
적으로 복무한 여기에 우리 당이 령도의 모진 광풍에도
흔들림없이 혁명의 방향타를 억세게 틀어쥐고 자주, 선군,
사회주의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온 근본비결이 있습니다.

조선로동당은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당입니다.

혁명명도의 전기간 우리 당은 나아갈 침로를 정할 때
마다, 준엄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인민을 먼저 찾고 인
민의 소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며 인민의 진정에
서 무궁무진한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전진전능한 인민대중의 창조력은 우리 당이 세계적인 탁월
과 민군이 지배하던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대한 사회주의
성세를 일떠세우고 제국주의의 악랄한 봉쇄속에서 강국
건설의 새시대를 열어놓을수 있게 한 기적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 당에 있어서 인민들의 정치적생명도 물질문화생활
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것은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제일중대사로, 본분으로 되어왔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판가리되는 최악의 시련속에서도 천신
만고를 다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씨앗들과
사회주의제부들을 마련하고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해온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만이 배울수
있는 인민사령의 정치입입니다.

우리 당이 언제나 인민대중을 생명의 뿌리로, 무궁
무진한 힘의 원천으로 여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해온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들은 당을 진정한 운명의
동태로, 어머니로 믿고 따르게 되었으며 이 땅우에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이 자랑스럽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동지들!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무진
막강한 혁명무력을 가지고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총이 없는 백성은 망국노의 실음을 먼저
못하며 혁명의 총대우에 인간의 존엄도 행복도 있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새긴 인민입니다.

우리 당은 언제나 인민의 안녕과 생명체산을 믿음직하
게 지켜낼수 있는 불패의 군력을 마련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위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인
민군대는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애에 때려부실수 있는
최정예혁명강군으로 자라나게 되었으며 전인민적, 전국가
적방위체계가 부단히 강화되어 지금 우리 국가는 금성

철벽의 요새로,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되었습니다.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은 언제나 조국보위, 혁명보위, 인
민보위의 위력한 보검이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힘있는 선봉대, 돌격대였습니다.

경제국방병진론을 제시하고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
설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과정에 우리 당은 모든것
이 부족한 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전반적국력을
비약적으로 높이고 동시에 인민생활도 향상시켜나가는
귀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침략과 전쟁으로 제 몸집을 비옥시켜 온 침로한 미제
와 직접 맞서 수차례 온 패배만을 안고 조국수호의
강도적인 제재와 봉쇄도 강행들과해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단합된 힘은 원수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습니다.

우리 당은 오늘 우리의 혁명적무장력이 미제가 원하는
그 어떤 형태의 전쟁에도 다 상대해줄수 있으며
조국의 푸른 하늘과 인민의 안녕을 억척같이 사수할 만
단의 준비가 되어있다는것을 당당히 선언할수 있습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의 남다른 긍지는 혁명의 전도와 민족의
장래를 떠메고나갈 청년대군이 준비되어있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은 항상 첫시기부터 혁명의 장기성을 내다
보고 청년중시를 전략적으로선으로 내세웠으며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맹장들로 키워왔습니다.

전당이 일상적으로 청년교양에 힘을 넣고 청년동맹에
클릭클릭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겨주면서 당의 청년
전위로 내세워준 믿음과 사랑속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의
년대들마다 조국보위초소와 어렵고 힘든 부문에
진출하여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쳐냈습니다.

우리 혁명이 오늘까지 침체와 담보를 모르고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에 넘쳐 즐거이 전진하고있는것은 당을
따라 언제나 끝바로 나아가는 청년만마와도 같은 강철의
청년대오가 있기때문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당창건 일흔돌에 드리는 선물로 마련한 백두산영웅
청년발진소를 비롯하여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자랑찬 청년대기념비들은 조선로동당의 후미대가 어떻게
준비되고 조선혁명의 대가 어떻게 이어지고있는가를
힘있게 보여주고있습니다.

세상에 돌도 없는 청년대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

온갖 산천수전을 다 겪으며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온 우리 당의 역사적로정은 당에 충실한 인민이 있고 강위력
한 혁명군대와 청년대군이 있으면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고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습니다.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에 혁명적당의 생명이
있고 힘이 있으며 양양한 전도가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우리 당 70년사의 고귀한 총화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인민중시, 군대중시, 청년중시의
3대전략을 제일가는 무기로 틀어쥐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매진할것이며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수할것입니다.

동지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입니다.

조선로동당의 머없는 영광과 불매성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데 있으며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데 있습니다.

우리 당이 조선을 이끌고 광명한 미래에로 힘차게 나
가자면 명실공히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혁명적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백배로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는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
주의이며 우리 당의 존재방식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령도상 처음으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
사랑의 정치를 펼치시고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
어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령
사를 수행아갈것입니다.

우리 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을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해나갈것이며 당사업전반에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진당이 인민에게
멸사복무하는것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배해나갈것입니다.

조선로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러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것은 없습니다.

우리 당은 당을 진심으로 따르는 인민의 마음을 혁명
의 제일제부로 소중한 간직할것이며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쳐미 미래의 위대한 모든것을 당겨올것입니다.

우리 당은 앞으로도 무한한 활력과 왕성한 열정으로
인민을 위해 정을 다하는 헌신의 당, 변함없는 어머니당
으로 자기의 무궁고도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갈것이며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인민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기의 본분에 무한히 충실할것입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련
단일 당을 따르고 옹위하는 영웅적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
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당은 인민을 하늘처럼 존대하고 스승으로 여기며 인민은 당
을 어머니와 같이 무한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일심단결이
야말로 조선의 참모습이며 선군혁명의 천지대본입니다.

우리 일꾼들은 당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뜻과 정을 심장
에 가득 채우고 인민앞에 무한히 겸손하여야 하며 생년, 길,
진창길을 앞장에서 헤치면서 인민이 바라는 일을 한가지라
도 더 찾아하여 로동당만세소리, 일심단결만세소리, 사회
주의만세소리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일러와 초소, 마을을 당중앙위원회 드래프과 같이
여기고 항상 당과 백두의 말을 나누며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백두같은 애국충정을 다해나갈것이라
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동지들!
우리 당은 일심단결과 선군의 위력으로 외세의 온갖
방해책들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
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앞당겨주기 위하여 적극적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것입니다.

동지들!
근로하는 인민이 영원하듯이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투쟁하는데 영원한 정의와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면위원의 한명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의
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사상과 업적
을 귀감으로 삼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투쟁할
것이며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갈것입니다.

역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당과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
할것이며 당의 혁명사상과 백두의 칼바람을 전진의 원동
력으로 하고 존엄높은 우리의 붉은 당기를 뜻으로 삼아
위창한 미래를 향하여 폭풍처럼 내달리는 조선인민의 투쟁
속도를 지연시키지 못할것입니다.

세상은 조선로동당이 위대한 우리 인민의 힘과 슬기를
충족발시켜 강성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 백두산대국을
어떻게 일떠세우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것입니다.

성스러운 우리 혁명의 이름과도 같고 70년의 승리의
역사와도 같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드는 위대한 조선로동당
이 우리 혁명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고 령도의 전철기를
위고있기에 영원히 주체혁명위업의 대로는 승리와 영광의
길로 펼쳐지게 될것입니다.

전체 당원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아갑시다!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대한
조선인민 만세!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당의 명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자랑찬 승리와 전변의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인들, 청년들, 인민들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우리 조국력사에서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뜻깊게 경축하고있다.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가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열병식이 진행될 김일성광장은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주체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뜻깊은 율해의 보람찬 투쟁에서 대박, 대기적용 창조하고 승리의 긍지높이 10월의 대축전장에 보부당당히 들어선 천만군민의 환희와 격정으로 새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광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광장 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백전백승의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 만세!》,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인 영웅적조선인민군 만세!》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고 쓴 글발을 드리운 대형기구들이 떠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불패의 당,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정일대원수님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조선로동당창건 일흔셋만세!》, 《불패의 당》, 《백전백승》 등의 구호들과 격발들, 조선로동당기, 공화국기, 최고사령관기가 광장주변건물들에 드리워져있었다.

기발계양대들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들이 나뉘고있었다. 주석단명열에는 조선로동당기가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병들이 서있었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영웅들, 혁명렬사유가족들, 연구자들, 공로자들이 자리

잡고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을 비롯한 대표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단성원들,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였다.

제일본조선인속 하단을 비롯한 해외 동포족향단, 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진선 평양지부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제일군기로 추켜들고 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더 높이 떨치며 당의 위업,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믿음직하게 보위해가는 백두산 무적강군에 대한 우리 인민의 신뢰심이 10월의 경축광장에 끓어오르는 가운데 열병종대들이 광장에 입장하였다.

광장과 잇닿은 대통령들에는 그 어떤 침략자들도 단애에 격멸소량할 수 있는 우리 식의 최첨단무기와 전투기술기재로 장비된 기계화종대들이 정렬해있었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슬하에서 자랑찬 승리의 길을 걸어온 영광된 우리 혁명무력의 성스러운 행로를 긍지높이 되새기며 선군조선의 무적막강한 군력을 힘있게 과시할 열의와 열병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불패의 혁명적당, 선군혁명의 강위력한 참모부이며 강성국가건설의 향도적력량인 조선로동당의 70년 력사를 대서사적화폭으로 펼쳐보이게 될 군중시위대오마다에도 승리의 크나큰 긍지가 차넘쳤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고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성대히 경축하게 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환희가 차넘치는 광장에 종합군악대가 입장하여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형상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여러 나라 대표단, 해외동포족향단, 대표단 단장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이 정중히 맞이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맞이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병대에 위병대의 영절의식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병대에 위병대 대장이 영절보고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병대에 위병대 대장을 사열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류운산동지가 나왔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양형설동지, 리용무동지, 오국렬동지, 로두철동지, 현철해동지, 리용무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알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싸동지와 찰리 포씨칼라 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조직위원회 위원장, 하티 키엣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대중운동부장이 주석단 초대석에 자리잡았다.

조선인민군 명예 위병대와 종합군악대가 당마크와 《E. C.》, 《4. 25》, 《10. 10》, 《70》이라는 글발을 띠어 새기면서 시작례식을 진행하였다.

에 국가와 《조선로동당 만세》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조선로동당기가 게양되였다.

열병부대 지휘관이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열병부대가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 열병식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열병부대를 사열하면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축하하였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이라고 힘차게 화답하면서 당의 명도따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보위하고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시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총참모장이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였다.

열병시작을 알리는 신호나팔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지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여 조선인민군 레포구분대가 70말의 레포를 발사하였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연설을 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이민위원의 한생으로 인민을 키우시고 조선을 빛내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하신 사상과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열사복무해나감으로써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감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전체 열병대원들과 군중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주체의 당, 조선로동당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어 우리 조국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으로 빛을 뿌리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함없는 경의를 드리고 감사사를 드리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가 조선인민군 장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병대에 위병대와 전체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초상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초상기를 우러러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열병행진이 개시되였다.

열병대오들의 선두에는 《반일인민유격대》, 《항일의 전열을 계승한 정규적혁명무장력대로》,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보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 《전군간부화》, 《최정에화된 백두산혁명강군》, 《진민주정화》라는 글발이 새겨진 기발들이 휘날리고있었다.

항일무장투쟁시기종대, 해방후 정규무력건설시기종대에 이어 근위 강건제2보병사단, 근위 서울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집결제4보병사단을 비롯한 근위부대종대들과 정치공작대, 소년근위대종대 등 조국해방전쟁시기종대들이 《유격대행진곡》, 《조선인민군가》, 《조국보위의 노래》, 《우리는 승리했네》의 군악에 맞추어 보부당당히 나아갔다.

3 면 으 로 계 속



조선로동당창건 70돌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2 면에서 계속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마련하여 주신 전승의 력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어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를 담은 《7.27행진곡》 노래선율이 힘있게 울려 퍼지는 속에 일당백의 고향 대덕산중대,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추격비행련대, 서해갑문건설부대를 비롯하여 전후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헌을 한 부대들의 종대가 기세드높이 행진하였다.

발걸음드높이 광장을 누벼나가는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무적의 총대로 혁명의 수뇌부들 결사옹위하며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믿음직하게 보위해온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백두의 대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수해갈 자주적근위병들의 필승의 기상이 어려있었다.

그 뒤를 따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정치대학, 김정숙해군대학, 김책항공군대학, 강건종합군관학교 등 조선인민군 각급 군사학교 종대들, 륜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부대중대, 녀성비행사중대, 병종, 전문병중대, 선군혁명

계승자들의 대오인 혁명학원중대들이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고 강대성의 상징이신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하는 성새, 방패가 될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인양 열병대원들의 우렁찬 함성과 힘찬 발구름소리가 광장에 메아리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앞을 지나는 열병대오들에 단례를 보내시였다.

선군조선의 필승의 기상이 넘치는 광장상공에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을 철벽으로 지켜가는 우리의 용감한 붉은 매들이 당마크와 《70》이라는 수

자를 새기며 날아 지나갔다.

《청춘과 용감성》의 노래선율이 열병광장에 울리는 속에 위대한 태양의 빛발아래 백두의 칼바람에 불을 달고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기상을 과시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중대가 로농적위군중대의 선두에서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광장에 들어섰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까지 백두산영웅청년발견소를 선군시대 청춘들의 대기념비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끓는 심장에 받아안고 백두전주에 애국충정의 고귀한 피와 땀을 뿌리며 영웅청년선화를 창조함으로써

약동하며 비약하는 청년강국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한 백두청춘들.

젊음의 힘이 용솨음치는 열혈청춘들을 보며 군중들은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의 70년력사는 위대한 청년중시사상의 력사,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운 력사이며 우리 청년들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의 계승자, 맹장들로 키운 자랑스러운 력사임을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당의 령도따라 조선청년들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백두산청년강국의 주인으로

서의 위업을 온 세상에 더 높이 펼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열병대오에 전투적인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서의 정당성과 생활력, 인민방위무력의 위력을 남김없이 펼쳐며 인민군대와 함께 무적의 전투대로 자라난 로농적위군중대와 혁명의 고대자, 믿음직한 후비대들인 붉은청년근위대중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조선소년단중대가 기세충천하여 행진하였다.

4 면으로 계속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3 면에서 계속

최세의 선군명장들께서 마련해 주시고 강화발전시켜오신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공업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선군의 위력을 과시하며 기계화종대들이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명판》,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 《나가자 조선아 병진앞으로》 등의 군악에 맞추어 광장을 누벼나갔다.

백두밀림에 휘몰아치던 빨치산혼련열풍, 백두의 혼련열풍속에서 일당백의 펄펄 나는 싸움군으

로, 조국통일의 척후대, 결사대로 억세계 준비된 각 군종 특전병종대마다에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는 천검만검의 성새, 방패가 될 억척불변의 의지가 비껴있었다.

금시라도 시별진 불줄기들을 내뿜으며 원수의 아성을 단숨에 짓몽개버릴듯 지축을 울리며 나아가는 무의 철갑의 대오들, 도발의 본지지를 섬멸의 조건경에 잡아넣고 무자비한 불피성을 터칠 포탄들이 만장약되어 있는 강철포신들과 로켓들.

각종 로와 장갑차, 탱크, 무인 타격기, 전략로켓를 비롯하여

우리 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과 초정밀타격수단들은 침략의 무리들이 목숨보다 소중한 사회주의 내 조국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면 무자비한 불벼락, 상상할수 없는 강력한 타격을 안길 만단의 격동상태를 견지하고있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자립적국방공업의 본본한 토대를 민족만대의 애국유산으로 더욱 빛내어갈 신념의 맹세를 하게 나아가는 속에 광장과 대동강 상공에 비행기들이 경축의 하늘가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과 가장 고결한 조국애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1950년대 투쟁정신, 군자리정신으로 선군조선의 병기창을 믿음직하게 지켜가는 그들에게 군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대진군을 추동하는 혁명군가를 힘있게 연주하며 행진군악종대가 《승리》라는 글발을 새기며 섹섹하게 나아가는 속에 광장과 대동강 상공에 비행기들이 경축의 하늘가

에 삼색연무를 뿌리며 열병식마감을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에 이어 평양시군중시위가 시작되었다.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의 노래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모신 환호대렬이 들어서자 광장은 또다시 격정의 파도로 세차게 설레이었다.

군중들은 주체형의 당건설의 혁명의 새련된 참모부,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향도자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가슴 들먹이었다.

10월의 대축전을 맞이한 승리자들의 긍지와 영광이 차넘치는 광장으로 당기폭출대렬, 군인가족대렬, 해바라기총대렬, 북춤대렬을 비롯한 각계층 시위대렬이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의 경의를!》, 《조선로동당창건 70돐 만세!》, 《주체형의 혁명적당》,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일심단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 《원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최후승리》, 《백두산대국》 등의 글발이 부각된 가장물, 구호판들과 함께 용용히 흘러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업적으로 빛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받들어 존엄높은 조선로동당의 기치따라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길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음을 과시하며 주석단앞을 지나가는 시위참가자들의 총천한 기세는 더욱 고조되었다.

세상에 없는 수령복, 당복을 누리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진전하는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은 필승 불패이라는 철리를 새겨주며 광장바닥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경축 70》, 《결사옹위》, 《어머님당》, 《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 등의 글발들과 당기, 공화국기가 띠어 펼쳐졌다.

종합군악대가 《김정은장군찬가》의 주악에 맞추어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원수벌과 《사수》라는 글발을 새기며 군중시위마감을 장식하였다.



군중시위가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으며 경축의 속포가 러져오르는 하늘가에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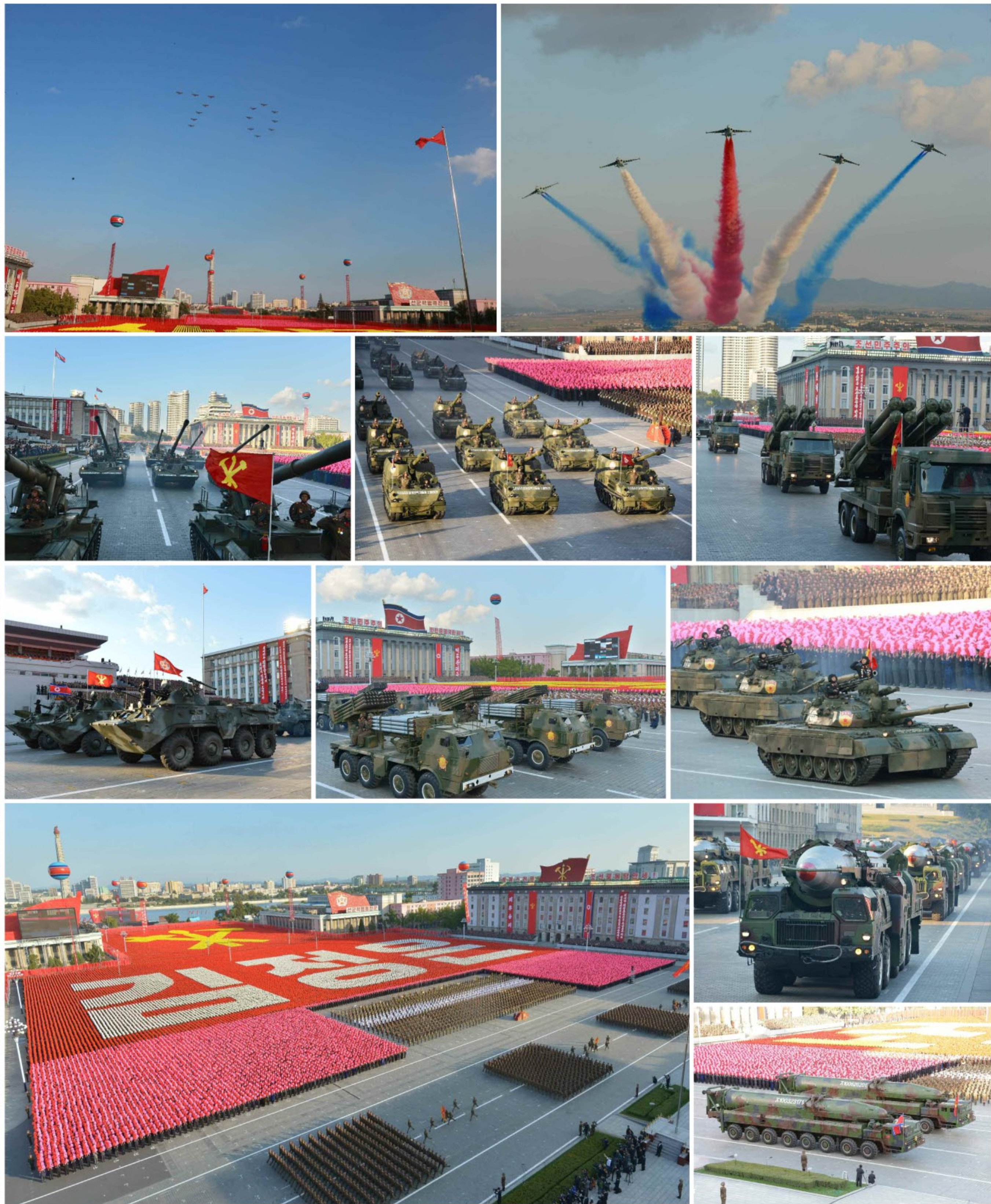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석단로대에 나오시어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당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만대에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와 두리에 굳게 뭉쳐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처럼 나아가는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백철불굴의 전투적기상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본시정지도도반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 성대히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참석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성대히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륙 경축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가 10일 저녁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독창적인 청년증시정치로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우고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대강국을 일떠세운 조선로동당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가 장엄한 화폭으로 펼쳐질 김일성광장과 그와 잇닿은 대동로에는 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한길로 끝마르, 역세제 나아갈 혁명적열정으로 충만된 청년학생들로 차고넘치었다. 광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초대석에는 조선로동당 창건 70년경축대표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 영웅들, 혁명렬사유가족들, 연고자들, 공로자들이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년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여러 나라 당대표단들을 비롯한 대표단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단성원들, 외국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70년경축제일본조선인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축하단, 대표단, 동포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 500만 청년전위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가 광장에 굽이치는 가운데 해불행진대렬들이 입장하였다.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모습을 우리르며 전체 참가자들은 한평생 청년들 속에 계시면서 그 누구도 실현해보지 못한 청년증시정치로 우리 청년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역사에 키워주시고 우리 당의 역사를 청년증시의 역사로 곳곳이 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보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이 풀어넘치는 가운데 우리 당의 빛나는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 절세위인들의 태양의 존함 글발이 광장에 모서지고 《창건자》, 《홍비서》, 《70》 등의 글발들과 조선로동당마크가 광장에 새겨졌다. 청년들을 로동당의 아들딸,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고 이 땅에 청년사랑, 청년증시의 대경륜을 펼쳐준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자랑찬 역사와 전통을 길이 빛내어나갈 일념안고 혁명학원대렬, 청년대학생대렬, 근로청년대렬들이 장엄한 행진을 개시하였다. 최후승리를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는 청년대군의 힘찬 발걸음소리가 천지를 진감하고 젊음으로 약동하는 청년강국의 위용이 대오마다에 용솟음쳤다.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주인이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우리 청년들의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주체혁명의 한길로 곳곳이 나아갈 청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인양 《발걸음》의 노래주악에 심장의 보폭을 맞추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을 모신 해불행진대오가 보무당당히 나아갔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려가는 조선청년들의 긍지높은 모습, 청년강국의 높은 존엄을 떨치며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청년전위들의 영웅적기상과 넓이 혁명의 해불봉마다에서 세차게 타올랐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시었다. 품결에도 그리며 지나가나

안기고싶었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뵈는 순간 전체 해불행진 참가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면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목청껏 리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해불행진참가자들에게 따듯이 손을 저어주시며 조선로동당창건 70년을 맞는 그들을 축하하시었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 김기남동지, 최룡해동지, 최태복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

동지, 오국렬동지, 김원홍동지, 김양건동지, 박범기동지, 오수용동지, 김평해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 태종수동지와 도당책임비서들, 당, 무력기관 일군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류운산동지,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쿠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쌀바도르 안도니오 발데스 메싸동지, 잔씨 포씨칼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조직위원회 위원장, 하 티 키엣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대중운동 부장이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해불행진 시작을 선언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가 힘있게 울려퍼지는 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무개차가 주체의 해불봉을 역세게 추켜든 세 세대 청년전위들의 용위를 받으며 광장에 들어섰다.

8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 《위대한 당을 따라 청년들 앞으로!》 성대히 진행

7 면에서 계속

당기와 원수별모형, 《령도자》, 《영광》 등의 글발을 드넓은 광장에 펼쳐 놓은 해불행진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중시 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이 시며 뜻깊은 올해에 조선청년 운동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려었다.

10월의 경축광장으로 《조선로동당》 글발대렬이 들어서고 《E. C》, 주체사상탑봉화모형과 《주체》, 《혁명전통》, 《이민위천》 등의 글발이 찬란히 빛을 뿌리며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한 우리 당의 자랑찬 역사를 대서사시적화폭으로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온 우리 당의 자랑찬 역사를 구가하는 《동지애의 노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조선의 힘》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 퍼지는 속에 《당》, 《군》, 《청》, 《승리의 전통》이라는 글발들이 광장에 펼쳐지고 해불행진대오들이 특색있는 대형변화로 《동지애》, 《일심단결》, 《선군정치》, 《백전백승》의 글발을 련이어 새기었다.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며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당의 청년전위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크나큰 영광과 긍지에 넘쳐 청년학생들은 주석단을 우리 《만세!》의 환호를 울리고 또 울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렬히 청년전위들에게 손을 들어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었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청년전위들의 철의 의지가 장엄한 불의 대하되어 용용히 굽이치는 대오마디에서는 하늘땅을 진감하는 우렁찬 구호의 합성이 힘차게 울려나왔다.

군중들은 우리 당의 70년력사속에는 청년중시사상의 력사, 청년들을 시대의 영웅, 창조적 거인, 주체혁명 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운 력사가

응축되어있음을 다시금 절감하며 미덥고 끝없는 천하무적의 청년대군, 선군청년전위들에게 열렬한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당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갈 혁명열, 투쟁열로 충만된 피끓는 청년들이 정신이 번쩍 들게 북소리를 짹짹 울리며 기세높이 주석단앞을 지나갔다.

활활 타오르는 수천수만의 해불을 추켜든 행진대오들은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을 과시하며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붉은기모형, 《혁명정신》, 《칼바람》, 《백두산대국》, 《조선속도》, 《최후승리》 등의 글발들을 련속 펼치었다.

《가리라 백두산으로》, 《당을 따라 청년들이 앞으로》의 노래주악에 맞추어 행진참가자들은 해불봉을 억세게 들어쥐고 용기백배하여 광장을 누벼나갔다.

혁명의 년대들을 영웅적위훈과 자랑찬 승리로 빛내이며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우리 당이 정한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리는 백두청춘들의 돌격정신이 해불행진대오마디에 차넘치었다.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 글발이 광장에 련이어 새겨지는 가운데 어머니당의 송고한 인민사훈을 창조해나갈 혁명열, 투쟁열로 무뎠던 마음은 만복을 누리갈 우리 인민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는 뜻 축포탄들이 금빛불보라되어 쏟아져내렸다.

조선로동당의 품이야말로 우리모두가 안겨살 은혜로운 어머니의 품이라 는것을 격조높이 구가하며 《운명도 미래도 말진분》의 노래주악이 울려 퍼지는 속에 청년학생들은 《로동당만세!》라는 대형글발을 광장에 새기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친필글발 《김일성 1994. 7. 7.》이 누리를 밝히고 《자주통일》, 《평화》, 《천선》, 《우리 민족끼리》, 《6. 15》 등의 글발들과 도형들이 펼쳐져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부강하고 통일된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혁명의 붉은기를 펴 펼 휘날리며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내달려나갈 열렬청춘들의 전투적기백이 나래치는 광장에 《최후대》, 《익숙부대》의 글발들을 련속 펼치며 석씩하게 나아가는 청년들의 가슴마디에는 청춘의 피끓는 심장을 당중앙위원회 의 드락에 이어놓고 당중앙과 사상과 습결, 발걸음을 같이하며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애국충정과 억센 기상이 뜨겁게 고동쳤다.

우리 당력사에 긍지높이 새겨놓고 길이 전해가야 할 영웅청년신화를 창조한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들의 위훈을 빛내이며 영웅메달모형과 함께 《청년》이라는 글발이 광장에 새겨지고 여러가지 도형들이 펼쳐졌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만난을 과감히 뚫고헤쳐 백두대지에 선군조선의 영웅청년신화를 아로새기고 긍지높은 청춘대하졸업증을 받은 우리의 장하고

미더운 백두의 청춘들.

정녕 당이 바라는 곳이라면 심심산중의 발전소건설장과 사회주의협동벌, 수산건설과 새로운 개발지들에 서슴없이 달려나가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치는것을 청춘의 값높은 영예로, 보람으로 여기는 청년대군이 있기에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는 더욱 빨라지고있는것이다.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의 노래주악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청년전위》, 《총폭탄》 등의 글발이 새겨지는 광장으로 《결사옹위》 글발대렬이 기세충천하여 광장을 행진해나갔다.

혁명의 년대와 더불어 창조하고 빛나게 구현하여온 수명결사옹위의 전통, 영웅적투쟁전통을 굳건히 이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해나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신념의 맹세가 광장에 세차게 맥박쳤다.

기백있고 박력있는 대형변화와 물동으로 해불행진참가자들이 광장에 새긴 당마크모형과 그를 중심

으로 펼쳐진 대형원은 당과 혁명의 요구, 조국의 부름에 언제나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하며 천만이 우리 당의 사상과 의지로 굳게 뭉친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참모습이었다.

뜻깊은 10월의 광장에 《당을 따라 앞으로!》, 《500만》이라는 대형글발을 새긴 청년학생들은 혁명선열들이 추켜들었던 혁명의 붉은기, 주체의 해불봉을 억세게 들어쥐고 우리 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가고갈 충정의 맹세를 안고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젊은 힘 넘쳐나는 청년들의 지칠줄 모르는 혁명열과 영웅적투쟁신화로 위력 떨치며 승승장구하는 김정은청년강국의 억센힘의 분출인양 밤하늘을 헤가리며 솟구쳐오른 축포탄들이 눈부신 불야경을 펼쳐며 하늘땅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해불행진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천지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당건설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시며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우리 당과 청년운동력사에 특기할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어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청년들이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고 백두의 이갈처럼 강직한 선군시대의 청년들격정신과 청년문화로 내 나라, 내 조국의 이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당중앙의 구상과 결심을 맨 앞장에서 빛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백두산청년강국의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둘째 청년전위들의 해불행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계승완성을 위한 력사적진군길에서 당의 믿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축부대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조선청년들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본사정치지도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중앙국방 및 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친근한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과 라오스인민, 나 자신
의 이름으로 당신께와 그리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과 조선인민에게 따뜻하고 형제적인 축하와 축원의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 70년간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동지 그리고 그분들의 위대한 혁명업의
계승자이신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은 주체사상과 선군로선의 빛발
따라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의 진취성을 믿음직하게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용맹하고 파격하게 벌여왔으며
당외의 로선을 관철하고 정치적인정을 보장하며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하여왔습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은 형제적조선인민이 지난 기간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을 중심으로 축하하면서 조선로동당과
형제적조선인민이 당신의 현명한 령도밑에 나라를 보위하고 강성부흥하는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위업
수행에서 보다 큰 새로운 성과를 거둘것과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이룩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친선, 협조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라오스와 조선 두 당, 두 국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목적인 원선관계가 보다 강화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과 아울러 당신의 숭고한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중앙국방 및 안전위원회 위원장

썬 말 리 싸 이 나 쏜

2015년 10월 6일 비엔리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어 온 선물을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단장인 당중앙위원

회비서 겸 당중앙위원회 위원장 겸 포에캉동지가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0돐에
즈음하여 류장락 중국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총제가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웬남공산당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웬남공산당
대표단 단장이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웬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대중동부장인 하티 키엣 단장
이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선군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따라 천만군민이 무진막강한 일심단결의 위력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나라의 국방력강화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대박, 대번혁을 창조해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이날을 맞으며 제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제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건설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와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비범한 예지와 특출한 정치실력, 숭고한 덕망으로 조선로동당의 백전백승의 위업을 굳건히 이어나가시는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선군조선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회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억연 드는지 않는 만민토대를 쌓으시어 조선로동당을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대한 업적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당건설을 혁명의 근본문제라고 보시고 참다운 정치적인 타도제국주의투쟁을 결성하시어 주체혁의 혁명적당건설의 시원을 열어놓으셨으며 20성상에 걸치는 항일혁명투쟁의 전기간 당장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다지셨습니다.

이렇듯 깊고도 역설적투쟁이 있었기에 우리 인민은 나라가 해방된 지 얼마 안되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혁명의 참모부를 가지게 되었으며 조선로동당은 창건 첫날부터 조선혁명의 항도적력량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충한 령도에 의하여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필승불패의 강철의 당으로 그 위력을 만방에 떨쳐온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들과 세계 혁명적인민들이 한결같이 우리리따르는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은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불만불복의 사상리용활동으로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이다》를 비롯한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로동당이 명실공히 영광스러운 《D. D》의 진통을 계승한 주체혁의 혁명적당,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학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는 김일성주의당으로서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고도 있고이고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혁명적당건설과 당활동의 만능의 보증을 인정주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은 조국해방전쟁과 두단계의 거창한 사회혁명을 승리로 이끌어 이 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떨치는 불패의 강국,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는 커다란 업적을 이룩하였습니다.
항모로 조선로동당은 온 세상에 창건을 선포한 때로부터 장장 70년세월 혁명의 붉은 기록에 승리만을 아로새겨온 백전백승의 당, 로속한 당이며 진산 사색들을 한눈에 안아 시대의 언덕에 높이 세워준 진정한 어버이당입니다.
반세기 가 넘는 장구한 기간 탁월한 사상과 세련된 령도로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로 강화발전시키시고 혁명과

제중조선인총련합회
주제104(2015)년 10월 6일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 숭고한 경의를 표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맞으며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0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국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도당책임비서들, 무역기관, 내각, 근로단체, 당중앙위원회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숭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립상앞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특근, 예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에여위병대가 정렬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말이 쓰여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을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 항도자, 선군혁명의 전루적함모부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주체조선의 부강번영을 위한 억연토대를 마련하여주시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위하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절세위원들이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들에 들어선 그들은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의 대추언으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 있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아 올랐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쓰여져 있었다.
군중들은 혁명적당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위업완성의 만민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세기동안 주권선 평양 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 놓여있었다.
당, 무역, 정전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세기동안 주권선 평양 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등의 글말이 쓰여져 있었다.
군중들은 혁명적당건설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위업완성의 만민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며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세기동안 주권선 평양 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10일 만수대의사당에서의 배방문하여 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서기처 서기인 류운산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창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경성의 무성 부상과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류운산동지는 조선여기에는 리창군 조선로동당

평양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는것은 김정은제1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이 창건후 오늘에 이르는 70성상 백두산절세위원들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조국역사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전진의 영웅사사시를 아로새겨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오랜 기간의 혁명투쟁속에서 우리 당은 수령의 유일사상체계, 유일적령도체계로 확고히 신수령의 당,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고 인민을 위하여 벌사 복무하는 어머니당, 강한 전투력과 로속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을 지닌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존엄과 위력이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최상의 경지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연회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연회가 10일 목란관과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김영남동지, 황병서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국가와 군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도당책임비서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경축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조국에는 제일본조선인축한다, 제중조선인총련합회축한다, 단장들과 해외동포들, 반세기동안 주권선 평양지부 대표가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중국공산당대표단, 쿠바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웬남공산당대표단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단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외국순신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성스러운 언덕들을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새겨온 긍지드높이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대대적축전으로, 혁명적대정사로 경축하는 참가자들의 기쁨으로 설비되고있었다.
연회에서는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양형섭동지, 로두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온 나라가 위대한

당에 대한 크나큰 긍지와 혁명의 상상한 전도에 대한 신심에 넘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의 대대적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전체혁명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두산절세위원들이 높이 모시고 승리를 떨쳐온 우리 당의 혁명투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조선로동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이 창건후 오늘에 이르는 70성상 백두산절세위원들의 사상과 령도를 빛나게 구현하여 조국역사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위대한 전진의 영웅사사시를 아로새겨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뼈에 새기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로선과 정책적결사관철하여 이 땅위에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천하제일강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울것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반드시 성취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우리 당이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밑에 혁명적당들과 친조국인민들과의 연대성을 더욱 강화하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류공공의 번영과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연설자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성을 축원하여,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의 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간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당의 두리에 혼연일체를 이룬 군민대단결의 장엄한 화폭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 평양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혁명의 수도에 선군혁명의 천하지배본이며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민대단결의 장엄한 화폭이 펼쳐졌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을 거행한 영광의 대오가 10일 수도의 거리들을 통과하며 평양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날 수도 평양의 거리마다선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에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승리와 영광을 아로새겨온 백두산혁명강군의 역전 기상과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금 파시던 열병대오를 맞이하기 위해 펼쳐나온 수도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최강의 무기이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위력한 추진력입니다.》

명절일적으로 단장된 평양거리로부터 천리마거리, 영웅거리, 비파거리, 승리거리, 대학거리에 이르는 수십리 연도에서 새로운 평양속도창조의 자랑스러운 력적전승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선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이 손과 손에 꽃다발과 꽃송이, 고무장갑들을 들고 열병대오를 맞이할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환영연도와 그 주변의 고층건물들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명도마라주께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위대한 선군정치 만세!》,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 만세!》 등의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연도의 곳곳에는 조선로동당기와 공화국기, 붉은기들이 펄럭이고 당창건 70돐경축 선전화들과 《영수님 따라 하늘땅 끝까지》, 《일심단결》, 《결사옹위》, 《군민대단결》 등의 글발들, 갖가지 장식물들이 세워져있었다.

우리 당과 혁명무력의 창건자, 건설자이시며 주체의 선군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모신 초상기를 선두로 열병식참가자들은 태운 자동차행렬이 평양대극장앞도에서 출발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들인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선율이 장중하게 울려져지고 우렁찬 《만세!》의 합성이 터져오르는 속에 연도는 격정의 꽃결로 새겨져 세웠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사열을 받으면서 크나큰 영광을 안고 최고사령관기와 당기, 공화국기들을 펄럭이면서 나아가는 열병식참가자들에게 박광구역의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열렬히 축하하였다.

환영의 꽃바다를 이룬 거리들을 따라 보우당당히 나아가는 백두산강군의 비대를 모습을 바라보는 군중들은 우리 혁명무력을 주체적군사사상과 전법으로 튼튼히 무장한 불패의 당군으로 키우시어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군사적담보를 튼튼히 다지시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해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에 여려와 뜨거워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장장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전진미담의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독창적인 선군의 길을 개척하시고 일당백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어 우리 당과 혁명이 영원히 승승장구해나갈수 있는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초인간적인 의지와 불변불후의 헌신과 로고로 백두산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인민군대를 창설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명도를 앞장서 받드는 혁명의 주력군, 무적필승의 위력을 지닌 최정예강군으로 키우시고 우리 나라를 그 어떤 강적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제시하시고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명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 혁명무력을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 끝없이 충실한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라는 철벽을 심장에 새기고 있던 군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진정 대를 이어 수령복, 장관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천출명장들의 사상과 기질, 품모를 닮은 백두산혁명군을 이 열병식참가자들을 뜨거운 환영의 열기로 맞이하였다.

시민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바라보는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의 긍지와 피어던 할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력사의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갈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었다.

《축하합니다.》, 《교감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며 서로 서로 손을 잡는 군중들과 열병대원들의 감격에 넘친 모습은 사회주의수호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국민의 한마음이 비친 숭고한 화폭이었다.

보통문앞에 줄지어 늘어선 각계층 군중들의 축하를 받으며 열병식참가자들을 태운 자동차행렬이 영웅거리에서 이르기까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국번영의 전진로를 열어나가는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걸음을 맞추며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충정의 력적전승을 안

습들이 그대로 안겨오는 대오를 바라보는 군중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마다 백전백승만을 아로새겨온 최정예혁명강군의 역전 기상인양 도도히 거리를 누벼나가는 열병식참가자들을 만경대남새진문농장 등의 능엄근로자들이 흥겨운 농악무를 펼치고 강반석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경쾌한 정음악을 연주하며 반겨맞았다.

기쁨과 감격에 넘친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열병대오는 평천구역안의 수만명 근로자들이 늘어선 천리마거리에서 출발하였다.

선군의 총대우에 사회주의조국의 번영도 인민의 행복도 있다는 철벽을 심장에 새기고 있던 군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진정 대를 이어 수령복, 장관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천출명장들의 사상과 기질, 품모를 닮은 백두산혁명군을 이 열병식참가자들을 뜨거운 환영의 열기로 맞이하였다.

시민들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바라보는 열병대원들의 얼굴마다에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호자의 긍지와 피어던 할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마를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력사의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나갈 철석의 의지가 어려있었다.

《축하합니다.》, 《교감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며 서로 서로 손을 잡는 군중들과 열병대원들의 감격에 넘친 모습은 사회주의수호전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당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국민의 한마음이 비친 숭고한 화폭이었다.

보통문앞에 줄지어 늘어선 각계층 군중들의 축하를 받으며 열병식참가자들을 태운 자동차행렬이 영웅거리에서 이르기까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조국번영의 전진로를 열어나가는 인민군대의 공격속도에 발걸음을 맞추며 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충정의 력적전승을 안

고 영광의 10월을 맞이한 보통강구역, 형제산구역안의 수만명 군중들이 수령의 유호판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 본보기의 영예를 떨치는 선군혁명의 기수, 주력군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명업적을 전하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바라보이는 연도에서는 서성구역 군중들이 환영의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가려한 조국해방전쟁의 화폭을 헤치고 승리의 7.27을 안아온 전쟁로병들과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에서 값높은 위훈을 새겨온 영예군인들, 제대군인들이 가슴마다에 새긴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최후승리의 불꽃로 앞장서서 열어나가고있는 근위부대 용사들에게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내고 또 보내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성으로 받들며 미제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살상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선군조선의 백승의 력사를 빛내신 승리의 자랑도 눈이 당창건 70돐을 성대히 경축하는 기쁨에 넘쳐서 서로 서로 축하해주고 고무해주는 그들모두의 가슴마다에는 력사의 그 어떤 도전도, 원수들의 그 어떤 발악도 당과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어려있었다.

환영의 꽃결을 헤가르며 자동차행렬이 모반분구역 주민들이 늘어선 비파거리를 누벼나갈 때 기계화장대들이 지축을 뒤흔들며 대하마양 노드치는 승리거리와 옥류교, 대학거리에서도 꽃바다가 펼쳐졌다.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용, 무인타격관 자위적국방공업의 위력을 파시하며 침략의 야성을 불바다로 만든 열적의 기상과 의지를 단장약하고 기온차게 내달리는 당크총대들과 방사포총대들, 무인타격기총대들과 각종 로켓총대들을 맞이한 선교구역과 대동강구역안의 군

로자들은 연해연방 탄성을 울렸다.

지난날 변변한 무기가 없어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면 안되던 우리 인민이 오늘날은 그 어떤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도 마음먹음대로 만들어내고 자위적책적책까지 갖춘 군사강국의 주인으로 존엄 떨치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더욱더 뜨겁게 열렬했었다.

우리 당의 독창적인 자위로선과 선군정치에 의하여 그 어떤 침략세력도 단념에 매부실수 있는 최정예강군으로 자랑난 혁명적무장력이 있어 내 나라의 영광과 부른 하늘은 영원하다는 진리를 뜨겁게 절감한 인민이기에 무인타격관 주체조선의 군사력을 파시하는 무적의 철갑대오에 보내는 박수갈채는 더욱더 뜨겁고 열렬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대한 수령, 위대한 명도자를 높이 모시어 백승을 떨쳐온 자주적 근위병, 자주적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높아지는 속에 열병식참가자들을 태운 자동차행렬은 풍송거리에서 들어섰다.

열병대원들과 환영군중은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신태양군을 숭엄히 우러르며 탁월한 사상과 명도, 애국애민의 헌신과 로고를 바치시며 주체조선, 태양민족의 강성번영을 위한 역년기들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다.

열병대원들을 태운 자동차행렬은 대성구역의 수만명 군중들의 열렬적인 환호를 받으며 개신문거리를 통과하였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새로운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는 기계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꾼들의 열렬한 환영은 필승의 신심에 넘쳐 도도히 굽어지는 열병대오에 혁명적열정을 더해주

었다.

최첨단들과의 열풍을 일으키며 10월의 대축전장에 몇몇이 들어선 자랑을 안고 연도에 걸음이 늘어선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시안의 대학교원, 연구사, 학생들이 주체혁명의 명맥을 앞장에서 전적으로 수호하는 인민군장병들과 청년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파시던 영웅청년신화의 창조자들, 강성조선의 밝은 미래를 떠메고나갈 후비대로 튼튼히 준비해가는 소년혁명가들을 열렬히 환호하였다.

열병식참가자들은 군중의 뜨거운 환영에 열정적으로 화답하며 주체의 선군혁명위업, 부강조국건설위업의 앞장에서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당정책관철의 최후대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의지를 더욱 가다듬었다.

중구역, 동대구역의 각계층 근로자들의 환영의 물결이 새차게 굽어지는 창천거리의 연도에서도 위대한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혁명의 년대마다 승리를 아로새긴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를 끝없이 빛내어나갈 신념의 맹세가 끝없이 분출되었다.

만민이 우러르는 태양영생의 성스러운 언덕에서 휘황찬란한 선군조선의 미래를 축복해주시며 해빛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우러르며 열병대원들과 군중들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모시어 조선로동당과 백두산혁명강군의 전투력이 천백배로 다져지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이 높이 떨쳐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삼가 아뢰었다.

정령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불굴의 신념, 혁명적의지가

이 땅우에 대거적, 대비약의 원동력으로 맥동추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빛내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수물처럼 일터서고 로동당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오고있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혁명의 붉은기들을 높이 드시고 인민군부대들과 사회주의건설의 중요전구들을 찾아 끊임없는 선군혁명명도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절세위인의 불멸의 명도의 손길아래 내 조국땅에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로동당세력과 더불어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도쳐어 일터서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되었으며 우리의 존엄과 위용은 우주에 닿았다.

열병대원들을 태운 자동차행렬은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적과 위훈의 자욱을 새겨갈 천만군민의 뜨거운 마음을 안고 대동문거리와 옥류교를 지나 대학거리로 용용히 굽어치러 갔다.

열병대오를 바래주는 군중들은 위대한 당의 현명한 명도가 있어 무적필승의 혁명무력이 있고 우리 당의 성스러운 70년사가 빛나고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온대도 경애하는 현수님의 두리에 천금같은 성세를 이루고 오직 당을 따라 혁명의 천리길을 억세게 걸어갈 불타는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이날 수시리 연도에 펼쳐진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참가자들을 대한 평양시민들의 전투력이 천백배로 다져지고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의 위용이 높이 떨쳐지고있음을 마음속으로 삼가 아뢰었다.

정령 위대한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경애하는 현수님의 불굴의 신념, 혁명적의지가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모잠비끄해방전선당 중앙위원회, 팔리를 위한 연합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9일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대표단성원들은 조선로동당을 광범한 근로인민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 세계 혁명당들의 귀감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꽃바구니의 명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생하시리라》라는 글발이 적여져있었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 창건 70돐 경축 해외 동포들을 위한 연회 진행

아동로전국민화회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 조국에 제휴하고 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었다.

김병철 조선해외동포문화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해외동포시업국 국장, 관

해외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인정을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회담

조선로동당대표단과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의 회담이 1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동지와 박근광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상대측에서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조직위원회 위원장 라오스인민혁명당대표단 성원들과 클라 인라부아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웰남공산당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웰남공산당대표단을 위하여 10일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당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하미 키엣동지를 가장 혁명적이고 전진적인 불패의 당으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고 말했다.

신대수행들께서 마련해주시고 오늘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관심하고계시는 쌍무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

그는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명도 밑에 가장 혁명적이고 전진적인 불패의 당으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되었다고 말했다.

신대수행들께서 마련해주시고 오늘 두 나라 최고령도자들께서 관심하고계시는 쌍무친선협조관계를 변함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는것은 우리의 일관한 립장이 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하미 키엣동지가 연설 하였다. 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셨던것으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당의 명도 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웰남당과 정부, 인민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올해는 웰남과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65돐이 되는 뜻깊은 해 이라고 하면서 그는 웰남당과 정부와 인민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언제나 소중히 여기고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웰 부 총비서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적인 친선협조관계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